



# 선열 닮 기리는 6월에 펼쳐는 희망의 미사곡

### 서귀포합창단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 레퀴엠' 선곡 무게감 있는 합창 무대 빛어 성악가 유소영·김승철 협연



최상윤 지휘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떠올리게 되는 6월, 그 닮을 기리는 무대가 있다. 최상윤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20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쳐는 제62회 정기연주회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정통 클래식 역사의 흐름을 잇는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1833-1897)의 '레퀴엠'을 만날 수 있다. 서귀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합창단이 모처럼 무게감 있는 작품을 선곡했다.

레퀴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

로하기 위한 미사음악'을 뜻한다. 브람스의 레퀴엠은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으로 불린다. 음악적 스승인 로베르트 슈만과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레퀴엠은 가톨릭의 미사통상문을 토대로 하지만 브람스 레퀴엠은 이같은 형식에서 탈피해 독일어 성서본문의 가사를 끌어온 연주를 목적으로 창작했다.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이 이 곡으로 위로를 받았듯 죽은 자를 위한 장송미사곡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레퀴엠으로 통한다. 특히 성서의 시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으로 모처럼 무게감 있는 합창 무대를 선보인다.

편, 요한복음, 이사야서 등에서 가져온 노랫말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애송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등 7곡을 들려준다. 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유소영, 바리톤 김승철이 솔로 협연하고 2대의 피아노와 팀파니 연주가 더

해진다. 공연에 앞서 오후 7시부터 10분 동안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서귀포대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로비음악회'가 진행된다. 관람료 무료.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4)760-2494, 739-527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시(詩)로 읽는 4:3 (13)

### 봉개동(奉蓋洞)

김종원

타 버려싱게 아홉 살 적 풋대추 찾아 기어오 르던 안마당의 대추나무도 타 버려싱게	인젠 찾아볼 수 어싱게  가을이면 갈증이 풋감 물들이고 겨울 한낱엔 폭폭 내려쌓인 돌담 눈길로 키보다 큰 꼬리엔 입김처럼 밀리던 중산 부락 나의 봉아오름
---	---

시인 김종원(金鍾元)은 오현고 재학시절 유경환·정규남과 함께 3인 시집 '생명의 장(章)'으로 이름을 날렸다. 1975년 3월 자유연륜수호 파동으로 조선일보에서 해직되었다. '봉개동(奉蓋洞)'은 1962년 '제주도'지에 발표한 작품이다. 봉개는 일제강점기에 명도암과 대나오름 등에 일본군이 갱도진지를 파놓았던 마을이다. 그 갱도진지가 4·3 당시에는 주민들의 피신처로 이용되었다. 마을이 초토화되면서 주민들은 인근 야산과 불타버린 집터에 움막을 짓고 피난살이를 했다. 1949년 1월 21일 군인, 경찰, 대항청년단 등 합동토벌대가 마을에 한청년단 등 합동토벌대가 마을에 들어닥쳤다. 마을 주변에 숨어 지내던 주민 40여명을 밀어내기로 하고 가 집단학살하였다. 1949년 2월 4일 육해공 합동으로 펼쳐진 대규모 작전으로 집단희생을 당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살 360명 포로 130명 기타 의류 등 다량 압수'

라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토벌은 비행기와 로켓포로, 박격포까지 동원하였으며, 압수품에 총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주민들은 성 안에 함바집을 지어 살았다. 함바선(咸炳善) 연대장이 주민들을 원거지로로 북귀시키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미군 비밀문서에는 "함바선 연대장은 신분이나 무기소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폭도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사살하는 가혹한 작전을 폈다"고 기록되어 있다. 2연대 3대대는 바로 서북청년단 출신 장병들로 구성되어 불붙을 가리지 않았다. 함바선의 성(姓)과 작전과장 김명(金明) 대위의 이름을 따서 마을이름을 '함명리(咸明里)'로 개칭하였다. 마을 재건 당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이름도 '함명교회'였다. 함바선은 1955년 2월 4일 봉개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주민들로부터 도열 영접을 받았다. <김관후 작가 컬럼니스트>

## 애월 고내 언덕에 사진 전문 갤러리

### '스페이스 라포' 문 열어 제주·서울 사진 교류 첫발 첫 사진심리상담소 표방도

옹하는 단어로 공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여행과치유 공동대표인 이겸·임진미씨가 운영하는 라포는 600평(1983㎡) 규모의 부지 어딘가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됐다. 공연, 전시, 캠프, 교육프로그램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가능하게 시설을 갖추었다.

사진 전문 갤러리면서 사진을 매개로 심리상담을 하는 '제주 최초의 전문 사진심리상담소'도 표방하고 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제주도지부, 한



제주시 애월읍 고내 사거리 언덕에 들어선 사진 전문 갤러리 '스페이스 라포' 전경.

국사진치료학회 제주도지부도 됐다. 스페이스 라포는 개관을 기념해 '사진가 15명의 계속탈트, 흑백으로 제주도를 보다'전을 기획했다. 제주

와 서울의 전업 사진가 15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시로 지난 8일부터 흑백 사진으로 제주를 표현한 작품이 펼쳐지고 있다. 제주도 1세대 사진가 고영일(작고)을 비롯 강정호 고경대 김흥구 성남훈 송동호 양동규 이갑철 이겸 이규철 이성은 이한구 최항영 하지권 한금선의 사진이 걸렸다. 개관 전시는 11월 11일까지 계속된다.

개막 행사는 이날 23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다. 스페이스 라포 주소는 제주시 애월읍 고하사로 15. 월요일엔 휴관한다. 문의 064)799-0708. 진선희기자

## 문화가 쫓지

### 박태준 선생 추모 서전

행·호서의 대가로 불리는 제주출신 해정 박태준 선생 추모 서전이 이달 22~27일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째인 이번 추모 서전에는 해정 선생 유작 4점을 비롯 정연희 회원 작품 35점, 초대작가 작품 32점 모두 합쳐 71점이 전시된다. 국전운영위원장, 심사위원장 등을 지낸 해정의 가르침을 받은 정연희는 선생의 기일인 6월 25일에 맞춰 매년 고인의 서예세계를 기리기 위한 작품전을 열어오고 있다.

### 탐동서 세번째 제주국악제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회장 홍승철)는 이달 22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제3회 제주국악제를 연다. 공연에는 국악실내악단 '더풍남'과 국악협회 회원들이 출연해 우리 가락의 향연을 벌인다. 더풍남은 양방언의 '프린스 오브 제주' 등을 들려주고 소리꾼 장진형은 '인연'을 부른다. 국악협회 회원들은 아리랑부채춤, 제주아리랑, 제주민요, 경기민요 등을 준비했다. 문의 064)759-3888.

### 어린이 우쿨렐레 교실 운영

서귀포시 남원읍 제남도서관은 어린이 우쿨렐레 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어린이 우쿨렐레 교실은 우쿨렐레 1급 지도자인 한영숙 강사의 지도로 7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우쿨렐레의 자세와 기본코드 익히기를 시작으로 코드를 사용해 연주하고 노래 부르기까지 우쿨렐레의 이론과 실기를 교육한다. 초등학교생 15명 선착순 모집. 문의 064)764-4651.

### 달리도서관 6월 북클럽

제주시 신성로에 들어선 달리도서관이 이달 26일 오후 7시30분 정유정 작가의 신간 '진이, 지니'로 세번째 '부끄럼 북클럽'을 운영한다. 부끄럼 북클럽에서 이달의 책으로 정한 '진이, 지니'는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내 심장을 짜라'에 이어 인간의 '자유'를 다룬 알곤편격으로 불린다. 부끄럼 북클럽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다른 주제와 다른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64)702-0236.

## 영상문화 육성지원 심사 결과 '잡음'

### 1단체당 1프로젝트 자격 하자있는 사업 선정 주장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심사 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8건이 신청했고 4건 총 1억6200만원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결과가 공개되자 '1개 법인(단체)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한 지원 자격을 어긴 행사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500만원 지원이 결정된 제주독립

영화 정기상영회가 그것으로 심사 평가의견에서는 '제주혼디독립영화제'가 포함됐다. 해당 단체는 이보다 앞서 올해 2회째인 '제주혼디독립영화제'를 별도 분리해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주독립영화 정기상영회'와 '혼디독립영화제'는 엄연히 다른 2개의 행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색선으로 혼디독립영화제가 진행되는 걸로 판단해 1개 프로젝트로 보고 작년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2억원 보증보험가입

선착순특가 여름방학

## 단회 몽골전세기

울란바토르

1,599,000원 → 1,399,000원

7/23(화) ~ 7/28(일)

4박6일 (제주출발17:00, 제주도착07:30)

안국정부 인가조건

올포함! NO탑+NO옵션

## 베트남전세기

다낭 / 호이안 / 후에

전세기특전 ① 5성급호텔 ② 옵션(\$250)포함 ③ 특식6회

1,299,000원 → 1,199,000원

개천절 연휴 10/2(수) ~ 10/6(일)

3박5일 (제주출발21:30, 제주도착08:00)

**니하오여행사** 722-6638

포함사항 : 항공료,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가이드,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몽골비자비, (기사&가이드)봉사료, VAT

**JOA tour 조아투어** 742-1980

(전세기)컨소시엄 문의 : 010-2294-0592